

환경부 장관 “소상공인도 활짝 웃는 일회용품 정책 모색하겠다”

- 한화진 장관, 일회용품 사용규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민생현장 찾아가 의견 청취
- 소상공인과 동행하며 환경정책 목표를 달성해 나갈 것

환경부(장관 한화진)는 11월 2일 오후 서울 양천구에 소재한 개인 커피전문점에서 일회용품 사용제한 강화에 대한 소상공인의 의견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직접 듣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.

이 자리에는 카페와 음식점을 각각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,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업계를 대표하는 주요 단체가 참석할 예정이다. 이날 간담회는 일회용품 사용규제로 인한 소상공인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일회용품 규제 개선 방안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.

이번 간담회에 참여한 업계 관계자들은 물가 상승, 경기 침체 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회용품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인건비 상승, 소비자와의 갈등 등 소상공인의 부담 호소와 정부에 대한 건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.

환경부는 이 자리에서 나온 소상공인의 건의사항들을 토대로 일회용품 감량 목표를 달성하면서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.

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“아무리 잘 만든 정책이라도 현장의 이해관계자가 이행할 수 있어야 정책목표도 실현될 수 있다”라면서, “소상공인도 함께 웃을 수 있는 일회용품 사용제한 정책을 마련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붙임 현장간담회 추진계획. 끝.

담당 부서	환경부	책임자	팀 장	임수영 (044-201-7417)
	1회용품 대책 추진단	담당자	서기관	황남경 (044-201-7414)

□ **추진 목적**

- 일회용품 사용제한 강화로 인한 소상공인 부담 증대가 우려되어 소상공인 목소리 청취를 위해 업계 현장 간담회 개최

□ **간담회 개요**

- (일시) '23. 11. 2.(목), 17:30 ~ 18:10
- (장소) 개인 커피전문점(서울 양천구 소재)
- (참석기관) 환경부, 소상공인연합회,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, 카페 사장협동조합, 개인 커피전문점·음식점 대표
- (논의내용) 현장 애로사항·건의사항 청취, 개선방향 논의

□ **세부 일정**

시 간		주요 내용	비 고
~17:30	-	■ 현장 도착	커피전문점
17:30 ~ 18:05	(35')	■ 애로사항, 건의사항 청취	매장 관계자
18:05 ~ 18:10	(5')	■ 마무리	

* 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